

신속 · 안전 백신 접종

익산시, 지난달 15일부터 일평균 800명 대상 백신 예방접종 정부 공급 일정 맞춰 화이자백신 신규 1차 접종 일정 조정

익산시가 정부의 추가 백신 보급에 대비해 의료진과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태세를 유지한다.

시는 이미 하루 백신 접종 대상자를 최초 420명에서 1,500명까지 확대하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의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추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사전 동의를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 2만1,433명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1,500명, 일평균 800여명씩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은 9,400여명으로 접종률은 44%이다. 시는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3주 후인 5월 6일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한다.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어르신은 정부의 화이자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5월 각 시군에 배분되는 6, 7, 8차분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은 순차적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시는 5월 중 추가로 화이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수급 계획에 맞춰 신속한 백신 접종 태세를 갖추고 신규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수송차량을 투입해 왔으며 방역담당 행정요원 등을 배치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접종 후에는 음면동별로 직원들을 투입해 3일 동안 1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대처 방법 안내하거나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완료를 목표로 하는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ENER-G사업단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혁신학습방법 제공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리를 설명하는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교육 콘텐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원광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리 설명 혁신학습방법 제공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ENER-G사업단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혁신학습방법 제공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리를 설명하는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원광대 ENER-G사업단은 현대자동차로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교육용으로 기증받아 AR콘텐츠를 제작했으며, 교육용 자동차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한 후 휴대폰(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NER-G사업단은 AR콘텐츠 뿐만 아니라 전공이론을 직접 적용해보면서 실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진화형 종합실제 '거꾸로 캡스톤' 과 학생들이 가상기업에 입사해 직무 체험을 경험하고, 산업체 전문가 멘토링을 받는 '가상기업' 등 혁신적인 학습방법을 새롭게 도입해 대학 내

혁신교육방법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영삼 ENER-G사업단장은 "이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리를 설명하는 AR콘텐츠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습방법을 꾸준히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ENER-G(Education for New Energy experts carrying Regional industry with Goodness)사업단은 2020년부터 2년간 총 2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선도할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기계설계 공학과를 중심으로 기계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화학융합공학과가 참여한 가운데 혁신교육과정을 비롯해 혁신학습방법, 혁신평가방법을 교과에 도입하는 등 혁신교육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군산형 청년수당' 참여자 100명 모집

군산시가 오는 5월 12일까지 '군산형 청년수당' 참여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군산형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넓히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군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최종학력 졸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구직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 중 소득, 미취업기간 등의 정량심사와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정성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해 5월 25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시 일자리 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sl_jin@korea.kr)로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 및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제2021-919호)를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454-438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익산시, 오늘부터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익산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녀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I·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으로 진행되며 올해 신규 가입자 12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이 가운데 일부 지원자는 5

월 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I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6만3천원)이 지원되며 만기 시 최대 28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만15세~39세의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

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에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도에 사장이 있어 통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6개월간 통장 적립 중지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장별 지원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선형성지원사업담당자(859-539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해양생명과학과, 와어제 ·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과학과가 최근 2021년도 와어제(蛙魚祭) 및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와어제는 해양생명과학과 학생들의 실험 실습을 위해 희생된 개구리와 어류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위령제이고,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인근 군산대학교 양어장 근처에서 열린다. 196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해양생명과학과의 중요한 연중 행사이다.

와어제에는 학과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학과 동문들이 참석하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와어제가 끝난 후에는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해양생명과학과 졸업생들이 심혈관 마련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재학생들을 선정하여 전달하고 있다. 올해에는 홍중민 동창회 회장이 3학



년 권경민 학생 등 4명의 재학생에게 동창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